

팜덕

## 한국식품연구원 패밀리기업 지정



팜덕의 '한국식품연구원 패밀리기업 지정서 전달 및 현판식'이 5월 27일 정읍시 신태인 소재 팜덕 제2공장에서 개최됐다. 연구원은 기술자원이 이뤄진 중소·중견기업 중 잠재력, 재무건전성, 시장 전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성장가능성이 있는 업체를 연구원의 패밀리 기업으로 지정, 지원하고 있다.

패밀리기업은 연구원 개발 기술의 상업화 공동연구 및 시범사업 기회를 우선 제공받는다. 연구사업 의뢰시 매칭 펀드 제공과 국가 R&D 사업 수주도 지원한다. 식품연이 연구원 파견과 연구원 이전 기술에 대해 지속적으로 사후관리와 현장활용을 지원한다.

(주)팜덕은 식품연이 농생명산업 지역인 전북 전주완주 혁신도시에 신청사를 개소한 이후 처음으로 지정한 패밀리기업이다. 전북 소재 식품기업 중 첫 지정이기도 하다.

팜덕 회장은 "지리산골 남원 청정지역에서 위생적인 설비 시스템에 의해 오리를 원료로 한 가공육제품을 생산해 왔다"며 "한국식품연구원으로부터 R&D와 장기 기업성장 전략 수립 등 양질의 지원을 받아 글로벌 식품기업으로 우뚝 서겠다"고 말했다.

다솔

## 영암 버스사고 성금 2천만원 기탁

다솔 문순금 대표는 지난 1일 영암에서 발생한 버스사고 부상자와 유가족 돕기 위해 남몰래 2천만원의 성금을 기탁해 주변의 귀감을 사고 있다.

한편, 다솔은 지역 내 소외되고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꾸준히 기부금과 성품을 전달하는 등 지역사회를 위해 기업의 이윤을 사회에 환원하는 데 노력하고 있다.